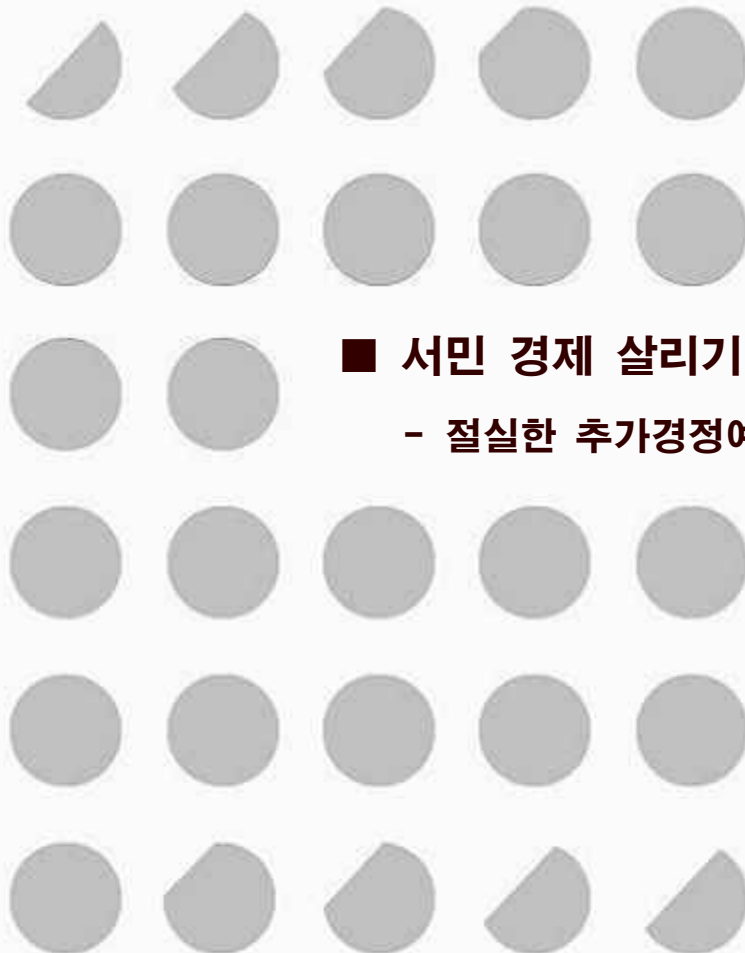


# 經濟週評

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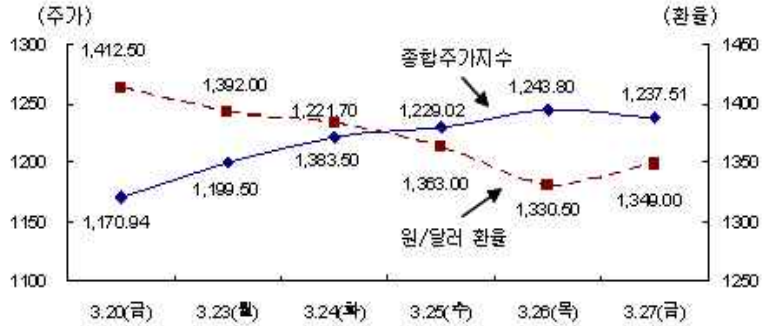


■ 서민 경제 살리기 시급하다

- 절실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

## 週間 主要 經濟 指標 (3.20~3.27)

Better than  
the Best!



## 차 례

주요 경제 현안 ..... 1

- 서민경제 살리기 시급하다
  - 절실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 ..... 1

주간 경제 동향 ..... 10

- 실물 부문 : 소비자 심리 불안 지속 ..... 10
- 금융 부문 : 금융시장 급속히 안정세 ..... 11

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.  
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총괄 :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 (3669-4032, bkyoo@hri.co.kr)  
 실물경제실 : 정유훈 선임연구원 (3669-4014, youhun@hri.co.kr)  
 금융경제실 : 현석원 연구위원 (3669-4024, kyotohyun@hri.co.kr)

## Executive Summary

### □ 서민 경제 살리기 시급하다

- 절실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

#### 1. 조사 개요

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실태 파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년 3월 9일 ~ 3월 13일 (5일간) 전국광역대도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625명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배분에 따른 전화 설문 조사를 하였다.

#### 2. 조사결과에 나타난 특징

본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서민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정부가 마련한 추경예산의 빠른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.

**첫째,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서민의 대다수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.**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덜 심각하다고 느끼는 서민이 5.1%에 불과한데 반해,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서민은 69.3%에 달했다.

**둘째,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경기가 가장 악화되고 있다.** 자영업자는 77.5%가 더 심각하다고 했으며,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70.4%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.

**셋째, 서민의 대다수가 현재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.** 응답자 중 61.0%가 경기 회복 시점을 2011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 경기의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.

**넷째,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소득의 감소폭이 크다.** 자영업자는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저소득층은 실직과 급여삭감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의 영향이 자영업에서 급여소득자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.

**다섯째, 대출이자 부담 증가와 자녀 학비 증가로 인해 서민의 네 명 중 한 명꼴로 가계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**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등으로 두 명 중 한 명 꼴로 가계 빚이 늘어나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 연령별로는 4,50대의 1/3 정도가 가계 빚이 늘었고, 주요 원인은 대출이자 부담 증가 외에 자녀의 학비 증가였다.

**여섯째, 소비 지출에 계층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** 소비가 줄었다고 한 비중은 30.2%가 되었지만, 40.3%는 오히려 늘었다고 하여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 자영업자, 저소득층, 고령자층에서는 지출 축소 비중이 높았고, 직장인과 고소득층에서는 늘어난 비중이 오히려 높았다.

**일곱째, 현재 경제 위기 극복 노력으로 서민들은 소비 절약 등 생활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앞으로 내수 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** 대다수인 78.3%의 서민들이 앞으로 소비와 생활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.

**여덟째, 현재 정부의 서민 경제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** 과반수를 넘는 62.0%가 현 정부의 서민 경제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.

**아홉째,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현금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, 고소득층일수록 상품쿠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.** 전체적으로는 현금 지급이 56.8%로 높게 나왔으나,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현금 지급을 원하는 비중이 68.3%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,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상품쿠폰을 원하는 비중이 33.3%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.

## 1. 조사의 개요

### ○ 조사의 개요

- 조사 기간 : 2009년 3월 9일 ~ 3월 13일(5일간)
- 조사 방식 : 인구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 설문을 통해 전국 625개 샘플을 수집
- 조사 대상 : 전국광역시도도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

1	2	3	4	5	6	7
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

### ○ 조사의 목적

-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우리나라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경제의 실태 파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

### ○ 응답자의 특성

- (성별) 남성 323(51.8%), 여성 300(48.2%)
- (직업별) 직장인 207(33.2%), 자영업자 142(22.8%), 전문직/공무원 43(6.9%), 학생 43(6.9), 기타/무직 56(9.0%)
- (연령별) 20대 127(20.4%), 30대 159(25.5%), 40대 148(23.8%), 50대 97(15.6%), 60대 이상 92(14.8%)
- (소득수준별) 2천만원미만 142(23.5%), 2~4천만원미만 271(44.8%), 4~6천만원미만 137(22.6%), 6~8천만원미만 34(5.6%), 8천만원이상 21(3.5%)
- (자산수준별) 1억원미만 211(35.5%), 1~3억원미만 193(32.4%), 3~5억원미만 95(16.0%), 5~10억원미만 74(12.4%), 10억원이상 22(3.7%)

2. 조사 결과에 나타난 특징

○ (현재의 경기 판단)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현재의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, 특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위기의식이 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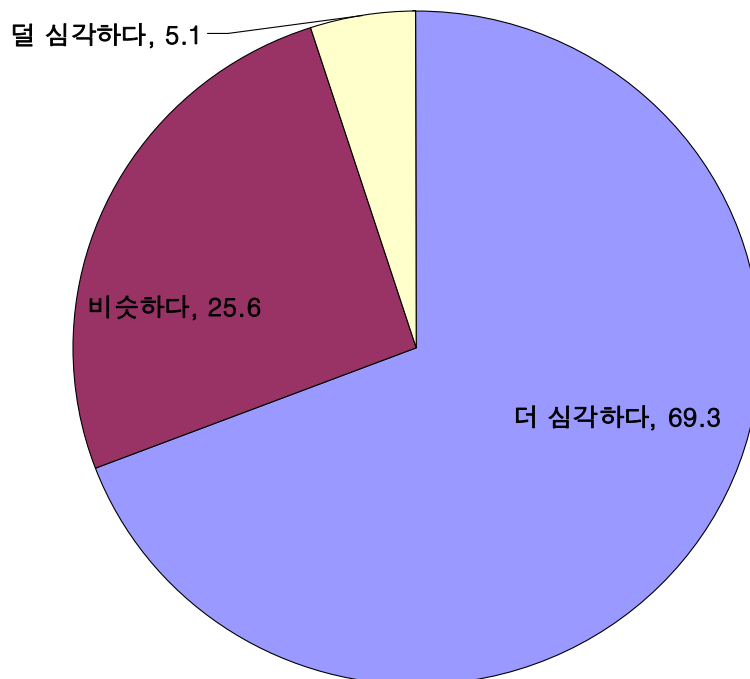
- (직업별)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제위기감이 가장 심각함

· 자영업자의 경우, 외환위기보다 “더 심각하다”고 보는 비중이 77.5%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반해, 공무원의 경우, 53.3%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임

- (소득별) 저소득층일수록 심각성을 크게 느낌

· 2천만원 미만의 소득자군은 70.4%가 현재의 위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, 2~4천만원미만의 소득자는 74.2%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

< 현재의 경기침체외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어떻게 느끼는가 >  
(단위 : %)



○ (경기 회복 시기 예측) 대다수가 2011년 이후에나 경기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현재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

- 경기 회복시기에 대한 서민들의 평가는 올해와 내년이 39.0%인데 반해, 2011년 이후라고 답한 의견은 61%에 달함

- (연령별) 5,60대의 고연령층에서 경기의 조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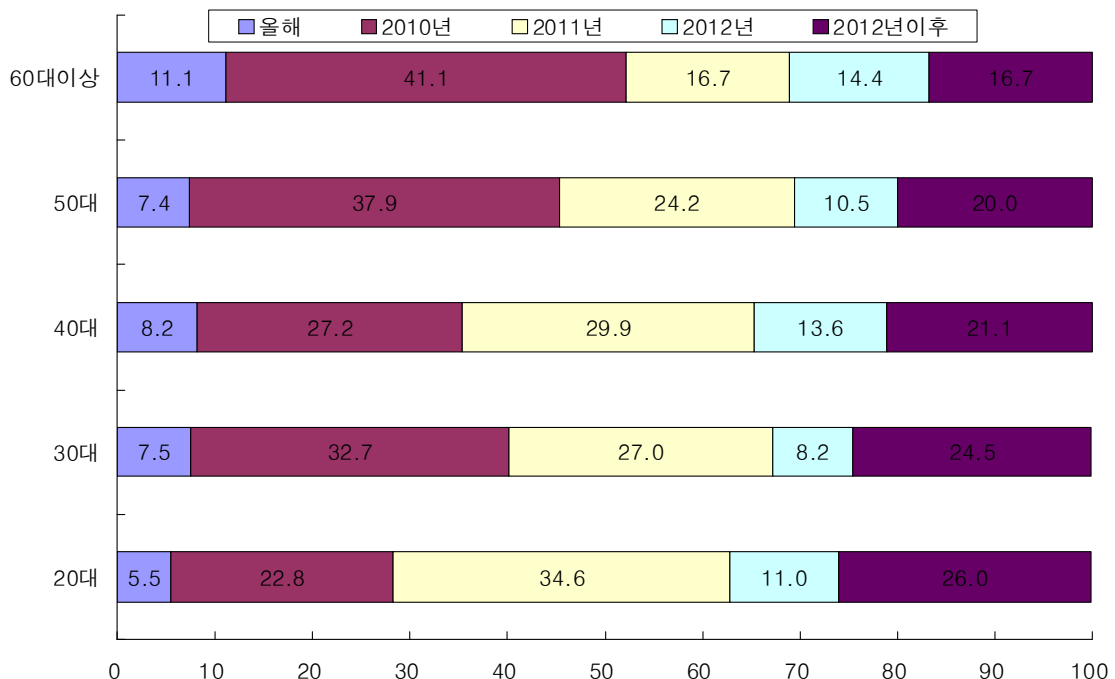
· 2010년 이전에 경기 회복될 것으로 보는 비중이 60대 이상은 52.2%로 과반수를 넘었고, 50대는 45.3%에 달한데 반해, 20대에서는 28.3%에 불과함

- (직업별) 경기 회복에 가장 비관적인 직장인들

· 직장인의 경우, 2010년 이전에 회복된다고 보는 비중은 37.6%로 자영업자(41%), 공무원(40%)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

< 우리 경제 상황이 언제쯤 호전될 것인가 >

(단위 : %)



- (가계 소득)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 소득의 감소는 저소득층일수록 크게 나타났고, 감소 원인으로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과 사업 실패가 압도적 이었으며 저소득층에서는 실직과 급여삭감으로 나타남
- (가계의 절반이 소득 감소) 전체적으로는 1년전 수준과 비교한 소득이 '늘었다'는 비중이 6.1%에 불과한 반면, '줄었다'는 비중은 45.9%에 달함
- (소득별)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감소 비중이 높아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소득 수준별로 볼 때, 2천만 원 미만(59.2%), 4천만원 미만(46.1%), 6천만원 미만(37.2%), 8천만원 미만(20.6%) 순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이 감소했다는 비중이 작아짐
- (소득 감소 원인) '매출 감소 및 사업실패(49.5%)'와 '급여삭감(19.7%)'이 소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, 경기 침체의 영향이 자영업에서 급여소득 자로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함
  - 자영업자의 경우, 매출 감소 및 사업 실패에 의한 소득 감소가 84.6%에 달함
  - 연 2천만원 미만 저소득군의 소득 감소 원인이 실직과 급여삭감이 각각 19.5%, 17.1%로 나타나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 1년전 수준과 비교한 소득 수준 >

(단위 : %)

	늘었다	줄었다	비슷하다
전체	6.1	45.9	48.0

< 소득 감소의 원인 >

(단위 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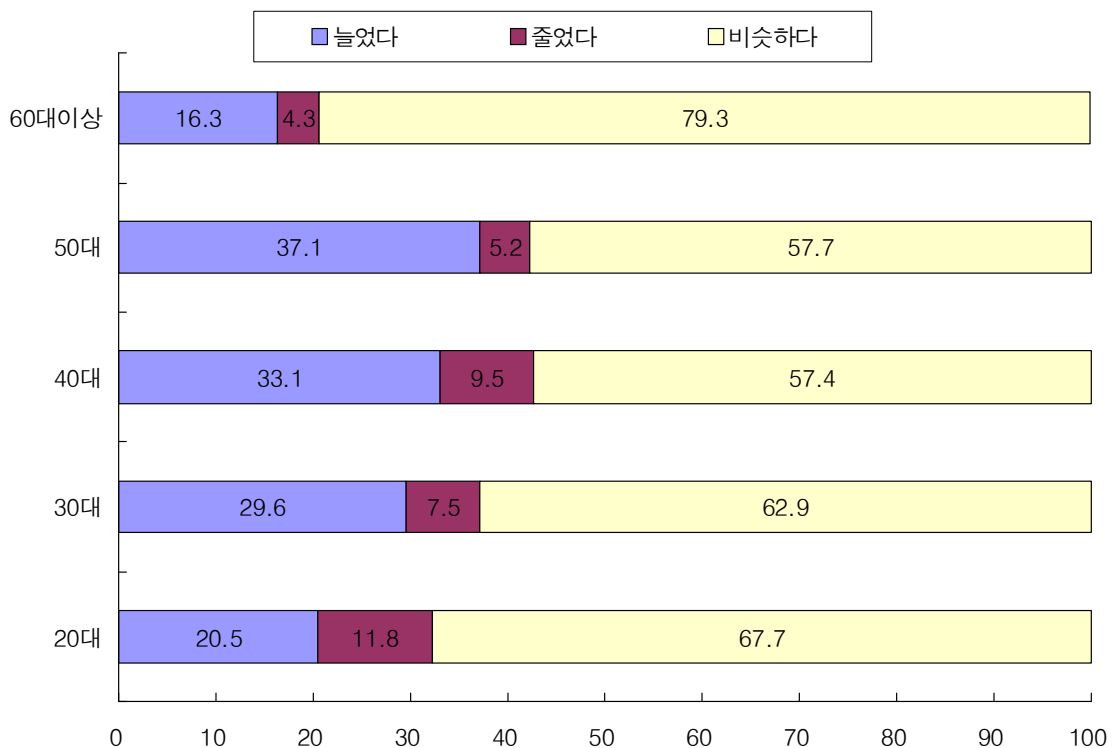
	실직	급여 삭감	부동산 임대소득 감소	주가하락 및 펀드손실	이자소득 감소	매출감소 및 사업실패	기타
전체	10.4	19.7	3.9	11.1	2.2	49.5	3.2



- (가계 부채) 전체적으로는 서민의 1/4이 가계 빚이 늘었고, 특히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거의 1/2 이, 연령별로는 4,50대의 1/3 정도가 가계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
- (가계의 1/4이 부채 증가) 전체적으로는 1년전 수준과 비교한 부채는 '줄었다'는 비중이 8.2%에 불과한 반면, '줄었다'는 비중은 27.7%에 달함
- (직업별) 자영업자의 경우 거의 절반 수준인 45.8%가 부채가 증가함
  - 자영업자의 경우, 부채가 '늘었다'는 비중이 45.8%로 '줄었다'는 비중 6.3%를 압도하는 수치를 나타냄
- (연령별) 4,50대에서는 1/3이 부채가 증가함
  - 40대, 50대의 각각 33.1%, 37.1%가 1년전 수준과 비교해서 부채가 증가함

< 1년전 수준과 비교한 가계 부채(연령별) >

(단위 :%)



- (가계 부채 증가 원인) 전체적으로 대출이자 부담 증가가 가장 높았고, 이외에 생계비와 학자금 대출 증가도 높게 나타남
  - 전체적으로는 대출이자 부담증가가 30.5%, 생계비 증가가 16.3%, 학자금 대출 증가가 17.0%로 나타남
  - 연령별로는 4,50대에서는 자녀의 학비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22.7%, 24.6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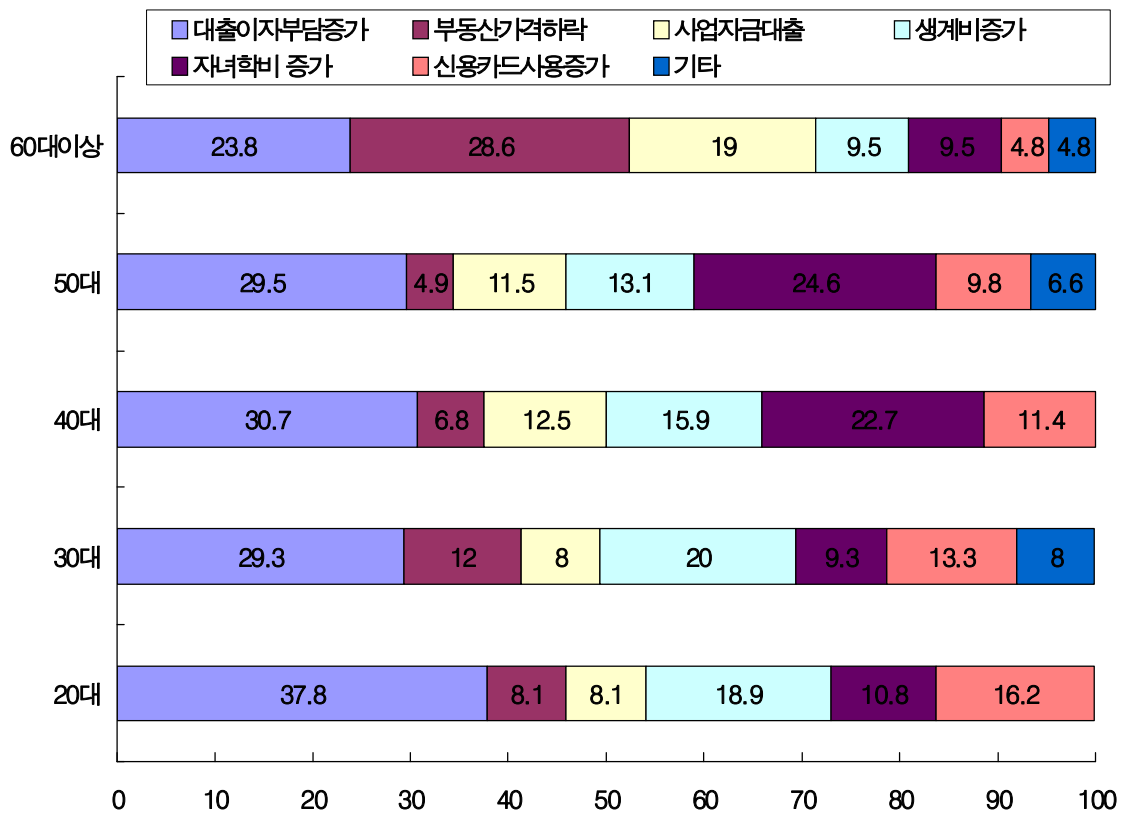
<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 >

(단위 :%)

	대출이자 부담증가	부동산 가격하락	사업자금 대출	생계비 증가	자녀의 학비 증가	신용카드 사용 증가	기타
전체	30.5	9.6	11.0	16.3	17.0	11.7	3.9

< 연령별 가계 부채 증가 원인 >

(단위 :%)



- (가계 지출) 가계 지출은 전체적으로 '줄었다'고 응답한 비율이 30.2%로 나타났으나, '늘었다'고 응답한 비율도 40.3%로 나타나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
  - (직업별) 자영업자의 지출 축소 비중이 가장 높음
    - 직장인의 경우 지출을 축소할 비중은 24.6%인데 반해 자영업자의 경우 37.3%로 축소
  - (연령별) 나이가 많을수록 지출 축소 비중이 높아짐
    - 지출을 줄였다고 하는 20대의 응답 비중이 23.6%이고 나이가 들수록 지출 축소 응답 비중이 늘어 60대 이상의 경우, 38%에 이름
  - (소득수준별) 저소득 계층일수록 가계 지출 축소가 크게 나타남
    - 2천 만원 미만의 저소득자군의 경우, 34.5%가 가계 지출을 줄였다고 한 반면, 6~8천만원의 소득자는 17.6%로 나타남
- (경제 위기 극복 노력) 소비 절약 등 생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내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
  - 전체적으로 소비절약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57.4%, 주택규모 등 생활규모 축소가 20.9%에 이르러, 경제 활동 확대라고 응답한 8.9%를 압도함
  - (연령별) 소비절약은 주로 20대가, 생활규모 축소는 주로 50대에서 나타남
    - 20대의 60.4%가 '소비 절약'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, 50대에서는 생활규모 축소가 26.4%로 가장 높게 나타남
  - (소득수준별) 저소득층에서는 소비절약 뿐만 아니라, 생활규모 축소까지 높게 나타남
    - 저소득자일수록 부업 활동 확대 등을 통한 극복보다 축소지향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나, 부업 활동 확대 비중이 7.1%에 불과했으나, 6-8천 만원 소득자는 12.2%에 달함

○ (현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) 현정부의 서민 경제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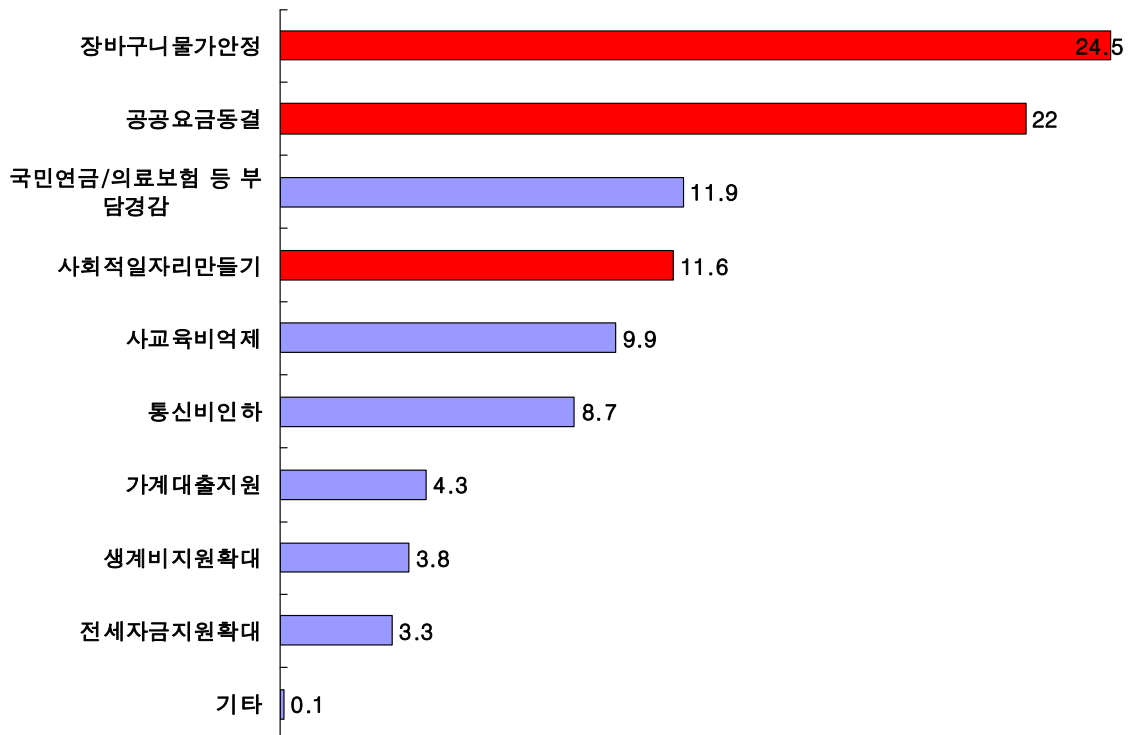
- 현정부 정책의 서민경제 안정 대책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62.0%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37.9%보다 높게 나옴

○ (현정부에 바라는 정책) 생계비, 대출 지원보다 물가 안정에 대한 요구가 현저히 높았고,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옴

- 가계 경제 부담 완화의 요구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와 물가 안정이 24.5%, 공공요금 동결이 22.0%, 국민연금·의료보험의 부담경감이 11.9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특히,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도 11.6%로 높게 나옴

<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부 정책은 >

(단위 : %)



○ (정부의 재정지원 방안)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, 고소득층일수록 상품쿠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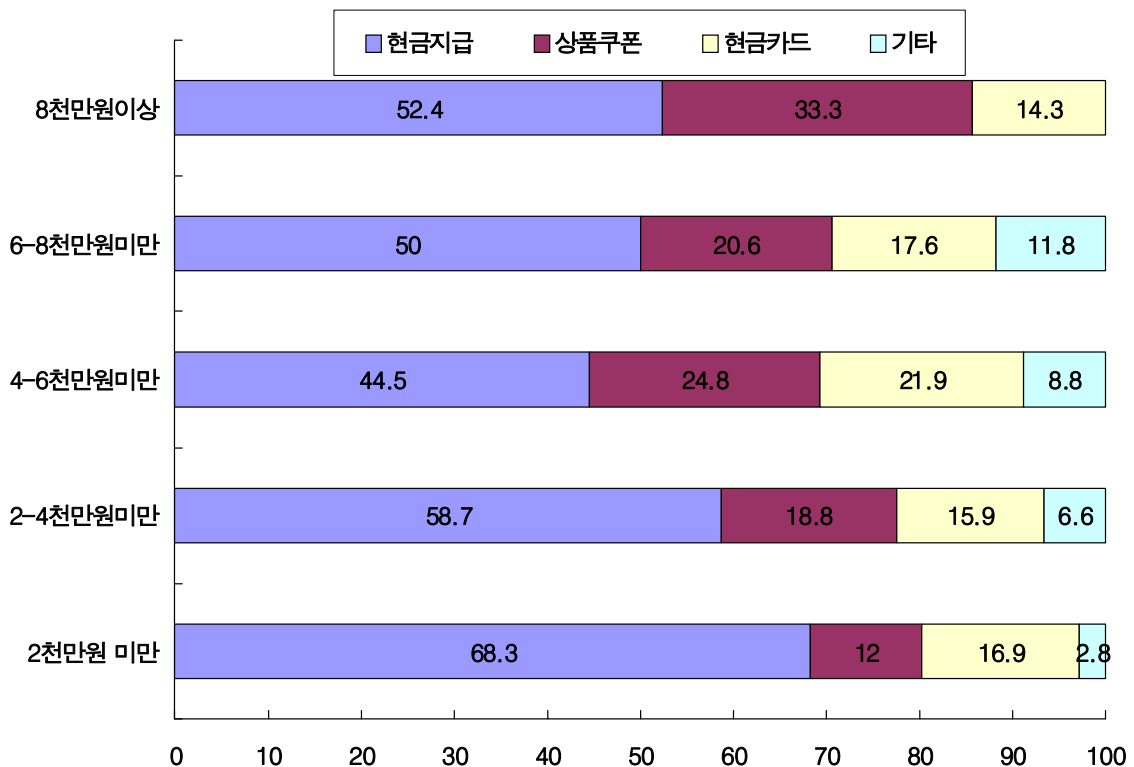
- 전체적으로는 현금 지급이 56.8%로 높게 나왔으며, 상품 쿠폰과 현금 카드는 각각 19.5%, 17.4%로 나타남

- (소득별) 저소득층은 현금지급을 고소득층은 상품쿠폰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중 현금 지급이 68.3%로 높게 나타났고, 상품쿠폰은 12.0%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-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상품쿠폰이 33.3%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현금 지급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 소득별 가장 효과적인 재정 지원 방안은 >

(단위 : %)



주간 경제 동향

□ 실물 동향 : 소비자 심리 불안 지속

○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4로 전월보다 1p 낮아져 3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됨

- 경기 판단 및 전망을 나타내는 9월 현재경기판단CSI는 38에서 35로 3p 하락, 향후경기전망CSI는 65에서 64로 1p 하락하여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임
- 물가 및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물가수준전망CSI는 128에서 142, 금리수준전망CSI는 89에서 92로 상승하여 물가와 금리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속됨
- 반면에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환율상승 효과가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4.1%에서 4.2%로 0.1%p 상승함

< 주요 실물 경제 지표 >

(전년동기대비, %)

		2007	2008				2009			
			연간	1/4	2/4	3/4	4/4	1월	2월	
경기	경제성장률	5.0	28(-35)	58(0.8)	48(0.8)	38(0.5)	-34(-5.6)	-	-	
	수요	소비재판매	5.2	0.9	4.4	2.9	1.4	-4.6	-3.1	-
		설비투자추계	9.2	-3.2	-0.7	-0.5	5.3	-16.2	-25.3	
		건설수주	23.6	-9.0	-3.7	-6.1	-22.7	-6.5	-15.0	-
		수출	14.1	13.6	17.4	23.1	27.0	-9.9	-33.8	-
	공급	광공업생산	6.8	3.3	10.6	8.6	5.6	-11.3	-25.6	-
		취업자수 (만명)	2,343	2,358	2,305	2,387	2,373	2,367	2,286	2,274
		실업률	3.2	3.2	3.4	3.1	3.0	3.1	3.6	3.9
수입		15.3	22.0	28.9	30.5	42.8	-9.0	-31.9	-	
대외 거래	경상수지 (억\$)	60	-16	-52	-1	-86	75	-136	-	
	무역수지 (억\$)	146	-132	-66	-3	-79	15	-34	-	
물가	생산자물가	1.4	8.4	5.1	9.0	11.3	8.0	4.7	4.4	
	소비자물가	2.5	4.6	3.8	4.8	5.1	4.5	3.7	4.1	

주 : 경제성장률의 ( )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,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.

□ 금융 동향 : 금융시장 급속히 안정세

○ (해외 금융 시장) 미 달러화 주요통화대비 강세 전환

- **금리**: 美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 공급 계획 및 英 재무부의 40년 만기 국채입찰 부진 등으로 향후 미 국채공급물량 흡수 능력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며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(국채 10년물 : 2.63→2.74%)
- **환율**: 엔화는 뉴욕증시 상승에 따른 안전통화로서 달러화자산 수요가 증대되며 상당폭 약세를 보였고, 유로화도 ECB의 추가 금리인하 등 양적완화정책 추진 가능성 제기로 전주말 대비 약세 (\$/€ : 1.3582→1.3526, ¥/\$ : 95.94→98.71)

○ (국내 금융 시장) 원화와 주가 강세 지속

- **주가**: 美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른 뉴욕증시 강세와 美 연준의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대폭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(1,170.9→1,237.5)
- **금리**: 기재부의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대한 수급 우려의 우세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(국고채 3년 수익률 : 3.49%→3.74)
- **환율**: 지경부의 3월 무역수지 45억불 흑자 전망 등의 영향에 따른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와 외국인 주식 순매수 관련 달러 매도세에 힘입어 전주말 대비 큰 폭 하락 (1,412.5→1,349.0)

○ (전망) 원화 환율의 단기 급락으로 조정에 따라 약보합 전망

< 주요 금융 지표 >

		2007		2008				2009	
		3/4	4/4	1/4	2/4	3/4	4/4	3.20	3.271)
국내	거래소 주가	1,946.5	1,897.1	1,703.9	1,674.9	1,448.1	1,124.5	1,170.9	1,237.5
	국고채3년(%)	5.46	5.74	5.10	5.90	5.74	3.41	3.49	3.74
	원/달러	915.1	936.1	990.4	1,046.0	1,207.0	1,259.5	1,412.5	1,349.0
해외	DOW	13,896	13,265	12,263	11,350	10,850	8,776	7,278	7,924
	Nikkei	16,786	15,308	12,526	13,481	11,259	8,860	7,945	8,636
	미국채10년(%)	4.59	4.02	3.87	3.97	3.82	2.21	2.63	2.74
	일국채10년(%)	1.69	1.51	1.45	1.60	1.47	1.18	1.27	1.32
	달러/유로	1.4267	1.4593	1.5788	1.5848	1.4092	1.3972	1.3582	1.3526
	엔/달러	114.80	111.65	99.70	106.22	106.11	90.64	95.94	98.71
	두바이(\$/배럴)	76.64	89.06	97.66	136.65	90.60	34.66	48.62	50.42

주 : 1) 해외지표는 전일(3.26) 기준.